

## 漢文教育科의 特성과 과제

梁 光 錫  
(誠信女大 漢文教育科)

### 1. 沿革과 特性

사범대학에 한문교육과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부터이다.

1 971년 中等學校 教育課程 부분개정시 ‘古典文化의 繼承과 漢字文化圈의 調和를 이루기 위하여’ 1972년부터 중등학교에 漢文敎科를 신설하고, 이와 병행하여 한문교육과가 설치되면서 현재 10개 과에 이르고 있다. 그밖에 12개의 漢文學科 그리고 거의 모든 教育大學院에 漢文敎育専攻課程이 설치되어 있다.

한문교육과는 이와 같이 중등학교에 한문교과의 신설과 함께 설치되었으므로 그 教育目標 또 한 유능한 漢文敎師를 養成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하겠다. 또한 교과의 설치 목적이 한문을 통해 고전문학을 계승하고 한자문화권 안에서 主體的・調和的인 문학발전을 기하기 위함인 것과 같이 전통문화의 바탕 위에 전통과 창조가 조화를 이루는 참된 교육을 創出하는 한문교사를 양성하여 20여 년간 나름대로 전통의 창달과 학문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본다.

한자・한문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국어 어휘 가운데 한자어가 7 할 이상을 차지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이 거의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혼단계에서 한자가 원활

한 언어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물론,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의 기본도구가 된다. 한문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자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국어 속의 한자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자・한문에 대한 이해 없이는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중등학교에 한문교과가 설치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한자・한문은 라틴어와 달리 아직도 生命力を 지니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언어생활과 새로운 민족문화를 전설하려면 한자・한문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語文政策은 ‘한글 전용의 바탕 위에서 한문교육을 병행’ 한다는 기본골격을 갖추고 있다. 한 나라의 어문정책이란 그 나라의 문화와 국민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써 國運과도 직결되므로 가장 기본적인 어문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한자・한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그것이個人의 성장과 발전에 목표를 두든, 社會의 機能과 役割에 목표를 두든 궁극적으로는 문학의 전승과 창조를 본질로 하며, 한문은 우리의 문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전체적으로 包括하여 왔기 때문에, 특히 國學分野에 있어서는 한문에 대한

綜合的研究에 의한體系化가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

“한문교육과는 중등학교의 유능한 한문교사를 양성하고 한문고전에 나타난 전통문화와 민족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공주대 요람』, 1990)

“중등학교 한문교사와 일생을 한문학에 바친 한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문교육과는 한문고전을 탐구함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의 연구 발전과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그 교육적 의의를 두고 있다.”(『성신여자대학교 요람』, 1990)

위의 두 대학 한문교육과의 목표 설정은 한문교육을 통해 원활한 언어생활을 영위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조화롭고 창조적인 교육을 이룩하는 바람직한人間像과 진정한國際化를 도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의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최대의 과제라고 하겠다.

## 2. 教育課程과 問題點

각 과마다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용하고 있다. 최근의 자료를 중심으로 10개 과 중 5개 과의 교육과정을 요람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 뒤의 〈표 1〉과 같다.

교육과정은 교육목표具現의 核心要素이므로 한문교육과의 교육과정은 언어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한문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표 1〉의 교육과정들은 基本敎科의 편성과 전체 구성에 있어서는 교육목표를 구현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뚜렷하고 또 어느 정도 접근되었다고는 하겠으나, 엄격하게 말하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공통적 문제점 가운데 근본적인 것만 개괄하여 지적한다면, 과목의 명칭에 일정한 기준이 없어 과목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교과목의 확대로 심도있는 교육이 어려우며, 개중에는 개연

성이 부족한 교과목 개설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과의 설치나 교육과정의 편성은 斯界의 권위 있는 학자들의 체계적·조직적인 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그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교육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학과 설치시 과의 특성이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의견 수렴보다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편성·운영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데서 초기의 모색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교육과정의客觀的妥當性 결여는 동시에 우수한 교수방법이나 올바른 교육평가의 개발을 저해하여 학문의 체계적인 발전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과정으로는 유능한 한문교사 양성은 물론, 원활한 언어생활의 영위 그리고 전통과 창조가 조화를 이루는 창된 교육은 더욱 무망하여 앞으로 새로운 모색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 3. 當面課題와 展望

### 1) 教育目標의 확립

이미 앞에서 제시한 교육목표를 요약하면 중등학교의 유능한 한문교사를 양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데 있으므로 한문교육과보다는 한문교육학과로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문교육과라는 명칭은 ‘교육과’와 ‘학과’를 구별하는慣行에 따라命名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한문교육학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학과명칭의 문제는 앞으로 사례의 권위있는 학자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문교육과든 한문교육학과든 ‘학과’가 아니고 ‘교육과’인 이상 그 궁극적 목표는 유능한 한문교사의 양성이고, 문화의 계승·발전은 어디까지나 유능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유능한 한문교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여기서 간과되어 온 사실은 한자·한문

〈표 1〉 한문교육파의 교육과정 비교

학교	전 공 필 수	전 공 선 력	전 공 교 양
A	초급한문, 한문학개설, 한어문법론, 서도설습 1·2, 중급한문, 한문학사 1·2, 사서강독, 문장연습, 한문학비평론	중국산문, 중국시, 한국한시, 한국산문, 역사산문, 한문소설, 제자서, 한문학작가론 1·2, 작문연습, 한문학배경론, 경서강독, 한문교재론, 행·초서연습, 서지학, 성운학, 문자학	
B	사서 I·II, 중국고전개설, 한국한문학사 I, 오경선독, 문자학, 한문국역연습, 한문학특강, 한문작문연습	한국역사산문, 한시론, 한국고전개설, 금석서예, 중국문학사, 동양철학개론, 중국사상사, 한문소설론, 한국한문학사 II, 실학시대한문학, 한국사상사, 고문진보강독, 한문학작가론, 중국역사산문 I·II, 중국고전강독, 한국역대산문강독, 시화강독, 제자선독, 중국역대산문강독, 한문학작품론	
C	기초한문 1·2, 사서강독 1·2, 중국고전강독,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국한시선독, 한문교육론, 한문습작	중국철학사, 한국한문학사 1·2, 중국역사산문, 한국역사산문, 문자학개론, 제자선독 1·2, 대학·중용, 한국시화, 삼경선독, 한국한문소설강독, 한국철학사, 중국문학사, 중국어, 서예	
D	한문소설강독, 한시강독, 이조산문선독, 한국한문학사 1·2, 한시론, 나례산문선독, 한문문류론	중국산문선독 1·2, 서도론, 백화자료선독, 중국문예시, 중국사서선독, 한문소설론, 시화선독, 한국고전해제, 한문특강, 제자강독, 한문비평, 한문사서강독, 오경선독, 한국유학사, 성운학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강독 1·2, 한자개설, 시서선독 1·2
E	한자시범, 한자학개설, 한문학개설, 한문문법, 경서강독, 한문소설, 한문학사, 한시강독, 한국시화	국한문고전개론, 중국역대산문, 한국역대산문, 중국역사전기문선독, 한국사전선독, 중국철학사, 제자선독, 중국문예사조사, 한문습작, 향찰·이두·구결, 한문국역연습, 한문학연습, 한적해제, 한시론, 한국사상특강, 한문학특강, 한문단편선독	

이 지니고 있는 言語使用機能의 伸張 측면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國漢文 混用에 의한 言文一致로 원활한 언어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며, 漢文 識解 기능의 선장 없이는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육목표를 한자·한문을 통해 원활한 언어생활을 영위하며 전통문화를 아끼고 바르게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전통과 창조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책임질 유능한

한문교사의 양성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2) 教育課程의 개선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구현하는 핵심요소로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학습하느냐 하는 교육내용을 종합하여 뮤은 교육의 전체 계획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의 구성은 사계의 권위있는 학자들과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여 학과의 특성에 맞게 민주적으로 계획되어야 한

〈표 2〉 5개 대학 한문교육과의 분야별 교육과정

대학	분야	語學	文			史	哲		書藝	書誌學	教育論	教材學
			原典	概論·史	기타		經典·諸子	概論·史				
A	필수	3	•	4	1	•	1	•	2	•	•	•
	선택	2	5	3	1	1	2	•	1	1	•	1
B	필수	1	•	3	2	•	3	•	•	•	•	•
	선택	•	5	7	•	3	1	3	1	•	•	•
C	필수	3	2	1	1	•	2	•	•	•	1	•
	선택	2	2	3	•	2	4	2	1	•	•	•
D	필수	4	6	5	1	•	2	•	•	•	•	•
	선택	3	3	4	•	•	4	1	1	1	•	•
E	필수	3	3	2	•	•	1	•	•	•	•	•
	선택	1	3	4	3	2	1	2	•	1	•	•
비율 (%)		15.3	20.1	25.0	6.3	5.6	14.6	5.6	4.2	2.1	0.7	0.7
			51.4				20.1					

다. 앞에 제시한 5개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야별로 분석하면 위의 〈표 2〉와 같다.

개괄하면 어학과 文·史·哲 가운데 文과 哲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어학은 文法·文字學, 文[文學]은 詩·小說·散文 등의 원전과 漢文學概論·文學史, 哲[哲學]은 儒家經典과 哲學思想史類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즉, 유가경전과 어학 그리고 사상의 바탕 위에 시·소설·산문 등의 원전을 이해·감상하며,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여 교수·학습하는 내용으로서 한자·한문이 지니고 있는 학문적 특성을 광범하게 선정하여 조직화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과의 특성이나 교육목표에 맞게 체계적·조직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과의 특성이나 교육목표에 맞게 개발되었다기보다는 인근학과를 도방하여 百科全書式으로 나열한 경향을 띠고 있다. 그 한 예로 언어생활과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목이 없으며, 더욱이 교육과인데도 교육론에 대한 개발이 없어 교수방법이나 교육평가에 있어서 많은 학생이 어려

움을 줘고 있다. 그러므로 體系的·組織的研究와 논의에 의하여 더욱 참신하고 학과 특성이나 목표에 맞는 교육과정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은 균형있게 구성·전개되어야 한다. 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교과명의 통일, 어학과 문·사·철의 균형있는 발전, 학년별 난이도 조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은 學問發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록 교육과이지만, 학문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교과목의 學的體系化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과정은 학생의 創意力を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시대의 변화, 사회의 요구, 학문의 발전 등을 반영하여 생산적인 힘을 지닌 지식을 습득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과정은 한문교육과로서의 普遍性과 대학별 特殊性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문교육과로서의 보편타당성과 지역별·학교별 특수성이 교과내용으로 설정·구성될 때, 학문적 조화

와 더욱 힘을 지닌 뿌리있는 교육이 행해질 수 있다.

### 3) 發展方向과 展望

교육목표나 교육과정이 아무리 조직적·체계적이라고 하더라도 교수방법과 운영에 따라 교육의 질이 결정되므로 학과 운영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적 규모의 協議體를 두어 학문과 교육을 전반적으로 연구·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과 자체에서도 협력하여 교수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학생에 맞는 교과의 운영과 교수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학생은 보다 능동적·적극적인 자세로 유능한 한문교사로서의 자질과 지식을 폭넓게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현직 교수들의 동질성이 이루어지고 학생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어 教育의 效果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의 특성을 최

대한 발휘하여 유능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전통을 확립하고, 民族文化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한자·한문은 모든 학문의 기본도구이고, 그 자체가 이미 철학이요, 윤리요, 교육이요, 삶이다. 따라서 全人教育은 물론이고 전통적 교육의 바탕 위에서 현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개발할 수 있고, 전통과 창조가 조화를 이루는 참된 교육을 창출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한문교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문교육과는 중등학교 전공자 확보율이 56% (1990. 4. 1 현재) 정도로 상치교사를 해제하는 경우 취업 전망이 밝다. 또한 고전 국역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며, 더욱이 민족의 동질성은 言語의 同質性에서 비롯되므로 통일에 대비하여 서라도 정책적 배려와 과 자체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